

# (주)대건 삼척고 이전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

## 근로자 중심의 열린 안전관리로 무재해 달성

최근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자율안전관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현장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견건설사인 (주)대건이 시공을 하고 있는 '삼척고 이전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이다. 이곳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이 인정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임직원과 근로자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즉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상생 안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곳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배경에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해당 현장이 '학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홀한 안전관리와 부실공사로 인해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미래 인적자원인 학생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 판단,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는 물론 학생들의 생명과 꿈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다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봤다. 취재 연습기 기자 skyway@safety.or.kr





###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로 재해예방

이곳은 2015년 3월에 이전하는 삼척고등학교의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현장이다. 도로조성만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공사인데, 이곳의 경우 공사부지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우선 현장 내의 석회암부터 모두 부숴야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곳에선 암깨기, 사토 등의 공정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먼저 땅속 깊이 박힌 석회암을 부수는 암깨기에는 주로 브레이커(속칭 뿌레까)가 사용되는데, 이 작업 중에는 파쇄된 암편이 비산하거나 장비와 근로자 간 충돌사고 등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해 이곳은 작업 전에 장비기사 등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작업 중에는 무전기 등을 통해 운전원과 유도신호수 간 수시로 작업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 사토 등의 작업 특성상 건설차량의 운행이 잦은 점을 감안, 신호수를 곳곳에 배치해 교통사고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가 앞장

대부분의 중소기업 현장이 당장의 위험요소를 제거 하기에 급급한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는 반면, 이곳은 매우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다. 최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곳 현장은 올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선도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지원을 받아 위험성평가 방법, 담당자 역할, 연간계획 등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도입, 적용해왔다. 특히 이곳은 위험성평가가 현장 임직원만의 절차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근로자들을 활동의 중심에 세웠다. 그 결과 지금은 임직원들보다 근로자들이 위험요소 제보 및 개선 등 재해예방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대규 소장은 “기존에는 일방적인 지시형 안전관리를 펼쳐왔으나 위험성평가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들의 역할이 안전현장을 만드는 데 있어 절대적임을 깨닫게 됐다”



면서 “도입 초기에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를 꺼려했으나 작은 의견도 수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자 근로자들이 점차 재해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무재해 준공이 목표

이곳 현장의 목표는 무재해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은 앞으로 본격 진행될 발파 등의 공정에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현장이 일반 도로와 맞닿아 있고, 현장진입로가 협소하다보니 건설 차량과 일반차량 간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때문이다. 이에 이곳은 차량유도자를 증원해 상시 배치하는 한편 건설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곳 현장은 큰 비용과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하고자 하는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만 있다면 우수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를 여타 중소현장이 본받는다면 보다 효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MINI INTERVIEW



신대규 현장소장

### 자율안전을 위한 환경 구축이 중요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등 현장의 소수 임직원만으로는 결코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무재해를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필히 근로자들이 안전활동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근로자들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건의사항이나 위험하다 싶은 것은 밤을 새서라도 해결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이 현장에서 반영되고 이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자 수동적이었던 근로자들이 점차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험요소를 찾아 제거하는 이른바 자율안전관리가 시작된 것이지요.



최명원 부장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효과적

흔히 안전관리에는 큰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침조회입니다.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조회에서 그날 공정의 위험요인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안전수칙만 제대로 주지시켜도 대부분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안전에는 ‘충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멈추지 않는 노력만이 안전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